

목포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중소형 선박 안전 거점 ‘우뚝’

전기추진시스템 성능시험장비 구축
중소업체 시간·비용 절감 효과 ‘톡톡’
FRP 재료시험·당일 선박검사 호응

목포 소재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가 중소형 선박 안전의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친환경선박보급법에 따른 시험 설비를 구축해 행정 효율화와 정책 고객 편의를 제고하며 지역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말 전기추진시스템 성능시험 장비를 구축해 중소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FRP 재료시험장비를 도입, 당일 선박검사 서비스도 호응을 얻는 등 지역사회 해양안전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월 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바다 위 환경 규제 강화 속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후 최근 5년간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추진 선박 건조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 규모는 2019년 28억3천 700만 GGT에서 2023년 31억4천600만 CGT이며, 현재 국내 50여척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포함)을 운항 중이다.

센터 설립 이전까지 선박 기자재 업체들은 전기추진 선박에 사용되는 전력변환장치 등의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험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사설 전문업체 등에 의뢰해야 했다. 예비검사를 위해 해외까지 가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졌다.

공단의 서남권 센터는 지난 2월 주에코볼타의 배터리 시스템과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첫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현재까지 전기추진 시스템 총 7대(배터리시스템 3대, 전력변환장치 4대)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기존 전력변환장치 시험 비용이 한 건당 평균 4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시범 운영으로 거둔 비용 절감 효과는 2천8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목포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FRP 재료시험 장비 활용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특히 검사 소요 기간 단축으로 친환경 선박의 안정적 납품에도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적

인과 효과는 더 커진다.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전문기업인 주린센 관계자는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에 모든 장비가 갖춰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됐다”며 “공단에서 직접 실험하고 규정의 어려운 부분까지 안내해줘 검사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센터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FRP 재료시험과 당일 선박검사 제공으로 현지 어선 건조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FRP는 국내 어선 대표 선질로, 조선소는 법에 따라 어선 건조 과정에 FRP 강도를 기술적으로 검증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센터에 FRP 재료시험기가 구축되면서, 조선소가 공단 검사원 입회 하에 민간업체에 개별적으로 의뢰하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FRP 재료시험의 경제성이 낮아 시험이 가능한 민간 업체가 감소해 왔는데, 공단의 FRP 재료시험장비 도입으로 지역 중소 조선소의 시간, 비용 부담 모두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이다. 최근 1년여 간 센터에서 FRP

재료시험 83건이 이뤄졌다.

선박 검사가 시급할 때 센터에서 첨단 설비를 활용해 당일 선박 검사도 가능하다. 여기에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전자증서 발급까지 하루 만에 이뤄져, 현지 어업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포에서 40년 넘게 어업에 종사 중인 장근 배 선주는 “조업 일정 때문에 급하게 선박 검사를 해야 할 때가 있다”며 “당일 검사가 가능해 성어기 어업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5월 경남 통영시에 남해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초 설계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4월 통영시와 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해양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와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 대선 투표율 84.9% ‘도내 3위’

명현관 군수 “국가 정책 반영 의지 결과”

해남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남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수준높은 군민의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관내 총 유권자 5만6천 611명 중 4만8천58명이 투표해 84.9%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남에서 3번째, 전국적으로도 5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특히 해남군은 도내 군 단위 중 2번째로 많은 선거인수를 가진 자자체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 사전투표 61.47%에 이어 6월3일 선거일 투표까지 합산해 85%에 육박하는 놀라운 뒷심을 발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날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남군은 비상상황에서 치러진 조기대선이지만 빈틈없이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척실히 준비한 결과, 높은 투표율로 선거를 잘 마무리하게 됐다”며 “직전 대선에서 도내 16위라는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3위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데는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합심해 선거를 통해 해남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특히 명군수는 선거과정에서 해남군이 추진



하고 있는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과 AI슈퍼 데이터센터 허브 조성 및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계획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고, 선거기간 내내 이슈화 된 데 대해 크게 평가하고, 군민들의 기대감을 전했다.

명군수는 “해남군의 높은 투표율은 해남의 미래비전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정된 마음이 작용한 결과”라며 “투표를 통해 해남의 자부심이 더욱 커진 계기가 된 만큼 군에서도 박지원 국회의원, 전남도와 함께 해남의 미래 전략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세계은행·개도국 공무원, 완도 ‘해조류 산업’ 배운다

양식 기술 공유·협력 체계 구축 등
2026 Pre해조류박람회 지원 약속

세계은행(WB)과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지속 가능한 해조류 산업의 협력을 위해 완도를 방문했다. <사진>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세계은행(WB) 관계자를 비롯해 케냐, 탄자니아, 세네갈, 모잠비크 등 13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44명이 방문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금융 기관인 세계은행(WB)에서 완도를 방문한 것은 4번째다.

이번 방문은 완도 해조류 양식장과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해조류 양식 기술 연구 등에 대해 협력, 글로벌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세계은행(WB)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세계은행(WB) 관계자 및 해외 공무원들은

신우철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수산업 현황, 양식 기술 등 해조류 산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다시마 및 전복 양식장과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조류 가공업체 등을 견학했다.

탄자니아의 공무원은 추후 완도군과 양식 기술 정보 공유 및 해조류 관련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희망했다.

세계은행(WB)은 해조류 양식 기술 협력을 물론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후원을 약속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이어 이들은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해조류 서밋(Global Seaweed Summit)’에도 참석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과 양식 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해조류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군 악성 민원 ‘업무 마비’…“제도적 대응 장치 시급”

공무원노조, 게시판 운영 방식 개선 요구

비효율적 구조 지적…법률 자문 강화

무안군에 반복적인 악성 민원 제기로 인해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소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제도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무안군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군청 홈페이지 내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중복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 촉구에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민원이나 개인적인 불만, 일상적 문의사항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조직 전반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 집중도를 떨어트려 게시판 운영 방식과 처리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글은 군수까지 결재 라인을 거치도록 돼 있어, 단순 질의조차 고위 결재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과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해야 한

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한 조합원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성실히 민원에 응답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되돌아온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일선 업무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의를 위해 일하는 자리가 개인적인 비난과 감정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며 “악성 민원과 일반 민원을 구분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호 절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 씨름왕대회’와 ‘대통령배 2025 전국씨름왕 전남도선발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법성포단오제·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성료’

전남 22개 시·군 600여명 참가

학생·읍면·전국선발전까지 열전

영광에서 전통과 열정이 어우러진 씨름대회가 3일간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렸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 씨름왕대회’와 ‘대통령배 2025 전국씨름왕 전남도선발대회’가 영광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앞 씨름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영광군 학생 및 읍·면 100여명의

선수들이 단오제 씨름대회에, 전남 22개 시·군 500여 명의 선수들이 대통령배 전남선발대회에 참가해 씨름의 전통을 이어가며 열정을 한껏 드러냈다.

경기장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투지와 관중들의 응원이 가득했고,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대회 첫째 날은 영광군 학생 개인전이 펼쳐져 ▲초등부(남) 1위-유지환 ▲중등부(남) 1위-김주성 ▲고등부(남) 1위-정학철 ▲여자부 1위-장여은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둘째 날은 영광군 읍면 대항전, 대통령배 예선 전이 치러졌으며 읍·면 대항전 경기 결과 ▲1위

-영광읍 ▲2위-묘량면 ▲공동3위-백수읍·법성면이 기록했다.

마지막 날은 대통령배 결승전이 열려 남자 7개 부문, 여자 3개 부문에서 경기가 펼쳐졌고, 영광군 선수는 ▲중등부(김주성), 대학부(박경빈), 여자 60kg 이하(김수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종합우승은 ▲1위 영광군 ▲2위 고흥군 ▲3위 구례군이 차지했고 ▲모범선수단에 완도군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법성포단오제 씨름대회는 5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단오제의 대표 행사로 선수들은 뜨거운 승부를 펼치며 씨름의 전수를 선보였다”며 “관람객들은 전통 스포츠의 흥미와 감동을 함께 나누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ASTIS 거점기관’ 선정

농업 통합 플랫폼…맞춤형 기술 지원

함평군은 4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ASTIS)의 2025년 전국 5대 거점기관 중 하나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ASTIS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토양 검정, 병해충 진단, 유용 미생물 보급 등 다양한 과학영농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특히 ‘미생물-키오스크-ASTIS 연계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함평군은 과학영농과 현장 기술지도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농촌지도 선도 모델을 구축하며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함평=김연수 기자